

고흥군 저출산 극복 성과 '눈에 띄네'

지난해 합계출산율 1.323명...전년보다 0.314명 늘어
전남도 22개 시·군 평가 '최우수'...광양·담양은 '우수'

고흥의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가임 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해 기준 1.323명. 전남 22개 시·군 중 꼴찌였던 전년도(1.09명)에 견줘 크게 늘면서 올해 목표로 했던 '합계출산율 1.205명'도 거뜬히 달성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도 270명(2016년)으로 전년도(236명)보다 많았다.

저출산 여파로 전국 뿐 아니라 전남 지역 합계 출산율(2015년 1.549명→2016년 1.466명)이 매년 낮아지고 전체 인구 수(올 10월 말 기준 189만4676명)도 감소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성과로 받아들여질만하다.

고흥군이 전남도의 '2017년 저출산 극복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뽑힌 이유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저출산 관련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자치단체로 꼽혔다.

전남도는 ▲자제사업 추진실적(40점)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증가율(20점) ▲사업추진도(30점) ▲노력도(10점) 등 3개 항목 11개 지표로 나눠 올 1~10월까지 자치단체 출산 정책을 평가했다.

고흥군은 최우수 단체로 선정,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됐고 광양시와 담양군은 500만원의 우수 단체로 뽑혔다. 나주·영광·해남·함평·보성군도 적극적으로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고흥군의 경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고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출산 대

응 시행계획'을 마련, 전 부서가 총력전을 펼친 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흥은 풍성한 혜택과 함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썼다.

우선, 조례를 바꿔 출산장려금을 늘려 첫째 아이의 경우 월 10만원씩 240만원, 둘째는 20만원씩 480만원, 셋째는 20만원씩 3년 간 720만원을 지난해부터 주고 있다.

임산부에게 출산 축하용품인 마더박스(내의·속삭개 등 7종)를 제공하고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수영장·체육센터·발영산 자연휴양림·우주과학관 등 지역 공공시설 이용료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결혼 예정 부부들의 건강검진비도 무료로 제공한다.

혜택을 주면서 '가족출산 모바일 서비스(고흥 아이사랑)'를 구축해 임신·출산의 주 연령층이면서 스마트폰 세대인 젊은 층에게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공을 들였다.

만 3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육아공무

원'의 경우 상·하반기 정기인사에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한편, 지역 내 미혼남녀 30명을 연결해주는 '청춘스캔들'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수상을 받은 광양시는 모든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인구 유입의 효과를 검토하는 '인구영향검토제'를 도입한 점 등이 인정받았다. 전 영역에 걸쳐 인구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광양시가 처음이다.

특히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11개 신규 시책을 발굴, 해당 부서별로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 유입 효과를 검토토록 한 뒤 분석 결과를 반영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반영키로 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30일 목포 상그리아호텔에서 22개 시·군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저출산 우수 자치단체들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곡성군 직원들이 인구 3만명 사수를 내걸고 인구 늘리기를 위한 '사·이·다'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다. '사이다'는 '사이좋은 이웃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인구 3만명 지키기' 안간힘

전국 향우에 서한문 보내고 '사·이·다' 캠페인

"사·이·다로 저출산 극복을~"

곡성군이 3만명 사수를 위한 인구 늘리기에 필사적이다. 캠페인을 열고 아이 디어를 공모하는가 하면, 전국 향우들에게 도와달라고 읍소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대회를 열고 '곡성 사·이·다'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사이다'는 답답한 상황이 통쾌하게 해결되거나 풀리는 상황을 말하는 뜻에 '사이좋은 이웃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더한 것으로, 곡성 인구늘리기 캠페인 명칭이다.

사실상 인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인구 3만명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군은 당장, 11개 읍·면별로 3% 늘어난 인구 목표를 정해 올해 말까지 3만 1013명을 유지, '인구 3만명'을 사수하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곡성의 인구는 11월 기준으로 3만110명으로, 올 1월(3만349명), 10월(3만127명) 등 꾸준한 감소세다. 이대로라면 3만 인구가 무너질 위기다.

군은 이에따라 군수 명의로 전국 향우들에게 서한문을 보내며 인구 유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근기 곡성군수 명의 서한문에는 "군민들이 점점 줄어 2040년에는 소멸 예상 지역에 포함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곡성이란 지명이 지도에서 사라질 지도 모른다"며 절박함을 강조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다목적운동장 만들고 주암호 연꽃습지 조성

보성군 내년 예산 올보다 384억 증액 4303억 편성

보성다목적운동장이 만들어지고 22억원을 들여 주암호에 연꽃습지가 조성된다.

26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이같은 사업 내용을 담은 4303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3919억원보다 384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3944억원,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 359억원이다.

공공질서, 안전, 보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보다 증가했지만 문화, 관광, 국토, 지역개발 분야는 감소했다.

예산규모는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올 해보다 20% 증가한 1331억원, 사회복지 823억원, 환경보호 516억원, 문화·관광 분야 244억원 등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보성다목적운동장 조성 15억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17억원, 보성정수장 증설공사 29억원 등이 반영됐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울포 해양종합휴양지 조성사업 90억원, 보성군 생태하천 복원사업 58억원, 주암호 연꽃습지 조성사업 22억원 등도 포함됐다.

또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연선루 증건(重建)사업 16억원, 태백산맥 테마파크 조성사업 8억원, 예당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16억원도 확보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고흥 자원재활용센터 폐기물처리시설 평가 전국 최우수 시설 선정

고흥 자원재활용센터가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의 '2017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 결과,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시설로 뽑혔다.

26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 자원재활용센터는 전국 생활폐기물처리시설 63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분야에서 전국 70개소 중 전국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23일 경주에서 열렸다. 고흥군 등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한 데다 폐자원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수익을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흥 자원재활용센터는 특히 평가 항목 중 기술성(재활용품 선별률, 가동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 제도는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수준을 높이고자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고흥=주정욱기자 gju@



"과거금지자 곡성읍 행차요" 조선시대 과거 금지 행렬 재현행사가 지난 21일 곡성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2017년 문화재청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의 하나로, 우수 상소문의 주인공인 초·중등 장원급제자 3명과 급제자들이 곡성읍 시가지를 행렬하며 곡성군수, 곡성교육지원청장, 곡성경찰서장에게 상소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소문을 전달 받은 기관장들은 상소문을 적극 검토,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곡성군 제공>

나무챔버 테마콘서트 시네마 공연 29일 구례문화예회관

구례군은 오는 29일 구례문화예회관에서 나무챔버 공연단의 '나무챔버 테마콘서트 시네마'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2017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영화에 삽입된 클래식

음악을 영화 주요 장면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민들에게는 무료로 보다 쉽게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다. 공연단은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각 80분간 영화 '미녀와 야수', '사운드 오브 뮤직', '미션', '진정한 금자씨' 등에 삽

입된 모차르트, 비발디, 가르델 등의 음악을 선보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연으로 지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h3>평택시 토지분양 (오픈)</h3> <p>삼성전자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미군기지 이전) (평택 항)</p> <p>■ 총 7필지 1필지(200평) x 평당 130만</p> <p>■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 완료</p> <p>■ 투자 최적합 - 미래 값어치 평당 30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1,413평) 매가 7억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p>010-6670-9800 010-7384-7800</p>	<h3>영광주택 매매</h3> <p>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p> <p>직거래 010-6670-9800</p>	<h3>법률 경매</h3> <p>(주대신경매)</p> <p>경매교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이론반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까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p>※공동 사무실 쓰실분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p> <p>010-6670-9800 010-7384-7800</p>
--	---	---